

로어본문의 표현에서의 논리대상적 및 표현정서적측면에 대한 분석

오 필 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학습을 열심히 하여 대학기간에 다른 나라 책을 자유자재로 볼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96페이지)

외국어로 된 원서를 자유자재로 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본문의 내용과 그 표현의 논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는것이다.

로어본문의 논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의 호상관계에 대한 연구는 본문의 내용과 그의 언어적표현의 특성을 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대상적관계와 논리적연계를 표현하며 본문을 현실과 련관시켜주는 요소들을 본문의 논리대상적구조라고 하며 주제에 대한 저자의 관계(평가)를 표현하며 본문을 수신인과 련관시켜주는 요소들을 표현정서적구조라고 한다.

본문에서 논리대상적구조는 통보의 기능을 수행하며 표현정서적구조는 작용의 기능 즉 어용적기능을 수행한다.

레: В ИЮЛЕ

- 7월에 -

В полях созрел ячмень.

보리가 무르익는 벌

Он радует меня!

나는 기쁘노라!

Брожу я целый день

온 종일 나는 거니노라

По волнам ячменя.

보리밭의 물결을 따라

Смеется мне июль,

7월이 나를 조롱하네

Кивают мне поля.

들에서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И облако – как тюль,

하늘엔 비단같은 구름이 드리웠네

И солнце жжет, паля.

태양은 모든것을 지지고 태운다

Блуждаю целый день

온종일 헤매노라

В сухих волнах земли,

건조한 대지의 물결속에

Пока ночная тень

곡식들에 밤의 어둠이

Не омрачит стебли.

드리울 때까지

Спущусь к реке, взгляну

강변으로 내려가 바라보노라

На илистый атлас;

감탕에 그려진 지도를

Взгрустнется ли, - а ну,

문득 서글퍼지는 마음

А ну печаль от глаз.

눈가에 어리네

Теперь ли тосковать,

보리가 무르익는 지금

Когда поспел ячмень?

슬퍼할 때인가?

Я всех расцеловать

오늘 나는 모두를

Хотел бы в этот день!

입맞추어주고싶노라

시본문에서 현실자료의 선택과 그에 해당하는 언어적자료의 선택을 한 측면으로 하고 주제에 대한 저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요소들을 다른 한 측면으로 하는것은 본문의 논리

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을 구분하고 그를 특징짓는 실례로 된다.

본문에서 론리대상적관계는 июль(7월), поле(벌), ячень(보리), стебель(줄기), облако(구름), солнце(태양), поспеть(созреть)(무르익다), река(강), волна ячменя(물결치는 보리밭), ночная тень(그늘진 밤), бродить(돌아다니다), целый день(온종일), кивать(끄덕이다) 등과 같은 어휘들에 대하여 나타나고있다.

본문의 표현정서적관계는 облако – как тюль(구름은 비단필같다), кивают мне поля(무르익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인다) 등과 같은 비교의 수법을 통하여, в сухих волнах земли(메마른 대지의 물결속에), солнце жжет, паля(태양은 내려찍여 죄다 태워버린다)와 пока ночная тень не омрачит стебли(곡식들에 밤의 어둠이 드리울 때까지) 등과 같은 대조의 수법을 통하여 나타나고있다. 7월의 보리밭과 내려쬐이는 태양, 메마른 대지, 그와 대조를 이루는 밤에 대한 형상적표현을 통하여 저자의 기쁨에 넘친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본문의 론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은 문예본문이 아닌 기타 본문들에서도 제시된다. 실례로 《네자비씨마야 가제따》 1996년 7월 9일부에 실린 론설의 일부를 보기로 하자.

Когда страна содержит себя в основном вывозом сырья, а изрядная доля ее граждан кормится продажей и перепродажей полученных за него товаров, ученым в ней делать нечего. Что проку, к примеру, сейчас разработать в России технологию суперпластика, ес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стейших пластмасс (полиэтилена, полипропилена, полистирола ...) дышит на ладан, а когда дело дойдет здесь д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уперпластиков, нынешние разработки успеют безнадежно устареть.

(나라가 주로 원료의 반출로 유지되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팔거나 되거래하여 얻은 상품으로 먹고산다면 학자들이 할 일은 전혀 없다. 실례로 지금 로씨야에서 최고급수지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있는데 만일 가장 단순한 가소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롤 등)생산도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형편에서 무슨 의의가 있단말인가. 최고급수지의 공업적생산까지 가자면 현재의 기술개발은 낡아져 가망이 없어 질것이다.)

여기서 대상적관계를 전달하고 개념과 그들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구성요소들을 구분할수 있다. вывоз сырья, продажа и перепродажа товаров, разработать технологию суперпластика,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стейших пластмасс (полиэтилена, полипропилена, полистирола),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уперпластиков, разработки успеют устареть와 같은 요소들은 본문을 현실과 직접적으로 련관시켜준다. 이러한 련관관계의 파괴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본문의 파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вывоз сырья》(원료의 반출)를 《ввоз промышленных изделий》(공업제품의 반입)로 교체할수 없다. 본문을 현실과 련결시켜주는 요소들은 동의어나 기타 단어들로 교체하기 힘들거나 혹은 전혀 교체할수 없다.

우의 실례에서 다음의 요소들은 통보되는 현상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본문을 수신인(독자)과 련관시켜주고있다.

례: изрядная доля, кормится продажей, ученым в ней делать нечего, что проку,

к примеру, дышит на ладан, когда дело дойдет д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이와 같은 요소들은 동의어나 기타 상관적인 언어표현수단들로 쉽게 교체될수 있다. 그러한 언어표현수단들로는 표현적수단들(높은 문체와 낮은 문체)과 중성적표현수단들을 들수 있다.

례: изрядная доля – солидная доля, сущ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대부분)

кормится продажей – перебивается продажей, живет
продажей, существует за счет продаж; (판매로 먹고살다)

ученым в ней делать нечего – ученым в ней нет работы, для
ученых в ней нет поля деятельности,
труд ученых не может найти в ней
применения; (거기서 학자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что проку – что толку, какой смысл, есть ли надобность; (무슨 의의가 있는가, 필요가 있겠는가)

к примеру – например; (실례로)

дышит на ладан – еле дышит, замирает, подыхает, отдает
концы, отдает богу душу, находится при
последнем придыхании, находится на
границе развала; (거우 숨쉬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다)

когда дело дойдет д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когда
начнется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공업적생산에까지 이르자면)

위의 실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본문에서 논리대상적구조가 통보의 기능을 수행하며 표현정서적구조가 어용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리상적인 경우이다.

실지로 본문들에서 이 요소들은 서로 고립되어있는것이 아니며 그들의 기능은 서로 교차되거나 혼합될수 있다. 즉 논리대상적구조는 자체내에 평가, 일정한 표현성을 포함할수 있으며 표현정서적구조는 거의나 항상 일정한 논리정보를 나른다.

본문내용의 논리대상적측면은 본문에 고유한 속성이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으로 인정되고있다. 물론 대다수의 본문들에는 논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이 다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표현정서적측면이 전혀 없거나 적게 들어있는 본문들도 있다.

그러한 본문들로는 날씨에 대한 통보를 알리는 기사를 실례로 들수 있다.

례: В пятницу 23-его декабря атмосферное давление в Подмоскowie будет расти.

Ожидается облачная погода с прояснениями. Местами не исключен небольшой снег. На дорогах по-прежнему очень скользко.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существенно не изменится. Не западе, в Можайске, Волоколамске, ночью около минус 7 – 10, днем от 5 – 8 мороза.

... ..

Ветер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умеренный.

Атмосферное давление немного выше нормы.

(12월 23일 금요일 모스크바지방에서 대기압은 높아지겠습니다. 구름이 끼고 때때로 개일것이 예견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히 미끄럽겠습니다. 대기온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겠습니다. 서부 모자이스크와 월로폴람스크에서 밤에는 $-7\sim-10^{\circ}\text{C}$ 겠으며 낮에는 $5\sim 8^{\circ}\text{C}$ 정도 되겠습니다.

... ..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대기압은 기준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우의 실례의 본문은 날씨에 대한 통보본문이다. 본문에서는 атмосферное давление(대기압), ветер северо-западный(북서풍), снег(눈),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대기온도), облачная погода(구름이 낀 날씨) 등과 같은 논리대상적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자료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표현정서적측면을 가진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본문은 표현정서적색채가 《령》인 본문 혹은 중성적인 본문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이와 같이 매 본문은 내용과 그 언어적표현의 논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의 상관관계의 견지에서 평가될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각이한 유형의 본문들에서 각이하게 나타난다. 공식사무문체와 과학문체의 본문들은 논리대상적본문으로 간주되고있으며 문학예술문체의 본문들은 표현정서적본문으로 간주되고있다. 정론문체의 본문들은 이 두 부류의 사이에 있다고 보고있다.

본문들을 이렇게 특징짓는것은 물론 과학본문이나 공식사무본문들에 표현정서적측면이 전혀 없다는것을 의미하거나 더구나 문학예술문체의 본문들에 논리대상적측면이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저러한 측면들가운데서 어느 측면이 더 전형적인가 하는것을 나타내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문학예술문체의 본문을 표현정서적본문으로 규정하는것은 다만 문예작품의 표현성, 평가성을 강조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이다. 논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의 량적 및 질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다양하다는것이다. 이 문제는 주로 문예본문의 실천문체론적분석에서 론하고있다.

본문의 내용과 그 표현의 논리대상적측면과 표현정서적측면에 대한 연구는 본문의 총적인 구조를 밝히고 본문을 문체론적으로 분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보다 더 심화되어야 할것이다.